

# 북스

Books

## 쥘 베른의 '신비의 섬' 국내 첫 번역 출간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1828~1905)의 '신비의 섬'(전 3권)이 국내 최초로 번역·출간됐다.

'해저 2만리', '15소년 표류기', '80일 간의 세계일주' 등을 쓴 저자는 탐험·모험소설의 대가로 알려지고 있다. 랭보, 사르트르 등 많은 유명 시인이자 작가들이 어린 시절 읽었던 저자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을 정도.

이번에 국내 첫 출간된 '신비의 섬'은 출판사인 열림원의 '쥘 베른 컬렉션' 9번째 책으로, 남북전쟁 때 남군의 포로가 된 5명과 개 한 마리가 한 밤 중에 기구를 타고 탈출해 무인도에서 펼쳐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출판사 측은 저자의 100주기(2005년)를 맞아 2007년까지 총 20권을 완간할 계획이다.

〈열림원·각 권 9천원〉



## 정상의 영광뒤엔 항상 그들이 있었다

### 세르파, 히말라야의 전설 조너선 닐 지음



독일인 빌리 메르를 대장으로 하는 16명의 유럽인 등반가들은 30여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1934년 '마(魔)의 산'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낭가파르바트(8,125m) 등정에 도전했다. 눈보라로 인해 16명이 고립됐고, 리더들은 세르파와 약해진 등반가 등 9명을 방치한 채 스키를 타고 탈출했다. 남겨진 이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르파들은 더 이상 등반가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역사적 등반 숨은 조연 세르파들의 삶과 투쟁

영국인 등반가 힐러리는 1953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 등정에 최초로 성공한다. 힐러리의 곁에는 텐징 노르가이(1914~1986)라는 세르파가 있었고, 힐러리와 함께 세계 역사의 한 줄을 장식한 것은 세르파가 됐다. 1934년의 일을 계기로 세르파들은 자신들의 등반 능력을 꾸준히 입증시켰고, 이로 인해 텐징이 정상 공격조에 포함될 수 있었다.

'세르파, 히말라야의 전설'은 항상 조연에 만족해야 했던 '히말라야 등정을 돕는 티베트계 네팔인 집안', 세르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미국인 사회운동가이자 논픽션 작가 조너선 닐은 이제

갓 눈 속에 묻혀 알려지지 않았던 세르파들의 등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수개월 동안 세르파 마을에서 살며 세르파 어까지 배우고 역사적 등반에 동참했던 생존자들을 만났다.

세르파는 텐징 힐진 이전인 100년 남짓의 히말라야 등반 역사와 함께 한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모인 등반가들의 짐을 운반하기 위해 고용됐다. 등반가들은 텐트와 찰남을 비롯해 식량, 옷, 산소, 의약품 등 엄청난 양의 짐을 가져야 했다. 그리고 세르파들은 1인당 20kg 이상의 짐을 졌다.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세르파였지만, 이들은 등반가들로부터 '짐' 또는 '하인'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아야 했다. 등반가들 역시 세르파가 없으면 산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이같은 태도가 당시 산악인들에게는 일반적이었다.

세르파라는 이름은 텐징 노르가이를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눈부신 성과가 텐징 한 사람만의 것일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희생했던 수많은 세르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생존해 있는 노(老)세르파들을 만나 1954년 이전에 히말라야를 오르면서 겪어야 했던 투쟁의 역사를 직접 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생생하게 하려는 일종의 투쟁이었다. 유명 산악인들의 무용담을 적은 수많은 '산서(山書)'에서 조연으로만 등장했던 세르파들은 저자를 통해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호·1만8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두보부터 정약용까지... 감성으로 읽는 한시

### 삼라만상을 열치다 김풍기 지음

'오래된 절에 오동잎 지고/가을 바람은 여름 못에 스민다/누각 머리엔 성긴 빗발 흩뿌리고/소나무 위로는 큰 별이 들성들성~/북쪽 샘물 소리 들을 만나/오늘 밤엔 고향 산골집 사립문 그림자나.(신광수의 '송암의 초가을')

조선 후기 문인 신광수는 빼어난 문재를 지녔음에도 사심대 중반 이후 과거를 포기하고 방랑과 시문짓기로 일생을 보낸다. 병으로 고생한 끝에 가을을 맞이한 신광수의 마음이 복잡하다.. 저 슬슬한 풍경은 신광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삼라만상을 열치다-한시에 담은 24절기의 마음'은 고전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김풍기 교수가 쓴 '한시 에세이'다. 김 교수는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한시를 감성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경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몸과 마음에 각인된 '24절기'라는 코드를 사용했다.

수많은 한시들은 중국과 우리 나라의 한시들로, 도연명, 두보부터 김시습, 이규보, 정약용에 이르는 다양한 시인들의 작품 80여편이다. 강원도가 고향인 저자는 유년기에 겪었던 사시사철 24절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추억을 들려주고 속삭이듯 한시를 읽어준다.

여름을 주제로 한 윤중의 '달밤'을 읽어줄 때는 '초여름은 보리밭의 추억과 함께 찾아온다'는 서정적인 감정을

전면에 내세워 독자들을 한시의 세계로 이끈다. 뒤 이어 '벌거숭이로 창문 사이에 누워서~/조연히 세상 어지러운 잊으니/나는 무엇하던 사람인가'라는 한시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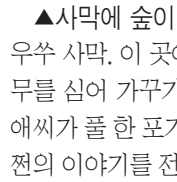
이처럼 저자가 읽어주는 한시 속에는 빠르게 돌아치는 세파에 지친 현대인에게 전하는 푸근한 대자연이 펼쳐져 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현대인들에게 잊혀져가지만 여전히 건강한 숨을 토해내는 절기의 시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김 교수는 "24절기의 변화는 우리 선조들이 읽어낸 우주의 질서 중 하나"며 "자연에 뿌리내리고 살던 우리네 삶의 기억을 되찾음으로써 정신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책을 집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푸르메·1만1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물에서 나온 새=따뜻한 울림과 성찰로 사랑을 받았던 동화작가 정채봉의 첫 동화집이다. 작가 추모 5주기를 기념해 출간하고 있는 정채봉 전집 작업의 '중단편 모음집' 첫 번째 권으로, '물에서 나온 새' 등 12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센터·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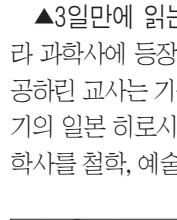
▲사막에 숲이 있다=황사의 진원지라는 중국 내이명구 마오 우수 사막. 이곳에 살고 있는 인위적이라는 여성은 20년부터 나무를 심어 가꾸기 시작해 숲을 일궈냈다. 다큐멘터리 작가 이미애씨가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곳에 기적을 만들어낸 인위적의 이야기를 전한다. 〈서해문집·8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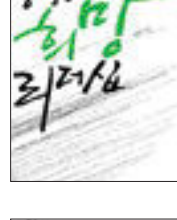
▲라디오 라디오=탁월한 입담으로 소설만으로 존재하는 '전업작가'의 길을 걸어온 소설가 구효서가 1995년 발표한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소설속 주인공이 듣는 라디오와 현재의 현재 우리가 듣는 라디오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해냄·9천500원〉



▲viva, 베네치아=기자 출신인 뒤르크 슈머가 소개하는 베네치아는 속삭이나 맛집 소개 등 관광 정보보다는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친근한 도시로 묘사된다. 도시의 역사와 풍경,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살아 숨쉬는 베네치아를 만나다. 〈푸른숲·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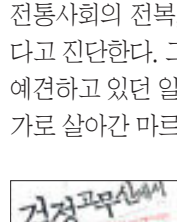
▲3일만에 읽는 과학사=과학이 걸어진 5천년의 발자취를 따라 과학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발견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다. 저자 공하린 교사는 기원전 3천년 경 수메르인의 수학 점토판부터 20세기의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보이'까지 인류의 과학사를 철학, 예술,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서울문화사·9천원〉



▲공병호의 희망 리더십=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 공병호 씨가 '희망을 주는 리더'에 대해 말한다. 능력, 품성, 태도, 마음가짐 4가지 분야로 나눠 탁월한 리더의 조건을 논하며 리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조언한다. 〈21세기 북스·1만2천원〉



▲너는 이 세기지를 명심하라=1964년 단편집 '불현문자' '어머니 그 뼈뼉뼉한 글씨' 등의 시집을 발표해온 신달자 시인의 산문집이다. 이미 1990년 '물 위를 걷는 여자를 발표해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얻기도 한 시인의 진솔한 이야기 35편이 실려있다. 〈문학동네·9천원〉



▲마르크스 평전=저자 자크 아탈리는 세계는 절대적 빈곤과 전통사회의 전복, 자본의 집중화 등 갖가지 모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용도 폐기된 마르크스에게 견고하고 있던 일이라고 말한다. 철학자, 혁명가, 경제학자, 사상가로 살아간 마르크스를 차분하게 들여다본다. 〈예담·2만원〉



▲검정고무신에서 유비쿼터스까지=임정민 교수가 우리나라의 근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생활 풍속사를 펴냈다. 우리사회에서 이뤄진 급격한 변화들이 중장년층과 다음 세대의 단절로 이뤄짐을 지적하고, 식, 주 등 생활사를 글과 사진으로 전한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SONY 광주전시장 새만장 기념 사은행사**

▶ 7개 ▶ 신제품 46" TV 출시기념 구매고객께 백화노리플 & 200원짜리 쿠폰  
▶ 7개 ▶ 디지털카메라 구입고객에게 삼각대 증정(50대 한정)  
▶ 7개 ▶ 소니 DSR(A100) 구매고객에게 무심한 사은품 증정

**10월 주말인심 초특기 sale**

▶ 7개 ▶ TV·캠코더·디지털카메라 10% 할인판매  
▶ 7개 ▶ 디지털카메라 구매고객 백화노리플+키링증정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철칙한방으로  
www.hanboGAGU.com

▶ 100% 원가판매 ▶ 100% 고객만족

▶ 100% 무료배송 ▶ 100% 품질보증

▶ 100% 고객만족 ▶ 100% 품질보증

▶ 100% 무료배송 ▶ 100% 품질보증

**사무용의지 전문상업용**

**TOUCH 광주총판**

▶ 100% 원가판매 ▶ 100% 고객만족

▶ 100% 무료배송 ▶ 100% 품질보증

▶ 100% 고객만족 ▶ 100% 품질보증

▶ 100% 무료배송 ▶ 100% 품질보증